

美·中, '관세휴전' 90일 연장...경주APEC 전후 성사되나

트럼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무역 파국' 피하며 對中 상황관리 中, '스톡홀름 협상' 공동성명 공개... '양국 발전·세계 경제에 이로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로 주목받은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나는 방금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기존 미·중) 합의의 다른 모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

다면, 미국의 기존 대중(對中) 관세 유예 조치는 미동부시간 12월 01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을 보면 새로운 관세 휴전의 종료 시한은 미동부시간 오는 11월 10일 0시11분이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트 추가 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이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 시간 12일 오후 12시1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1분)부터 관세 휴전 조치를 90일 동안 다시 시작한다며 "중미가 일부 추가 관세 중단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각자의 발전 목표 실현과 세계 경제 발전·안정 촉진에 이롭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세계 1·2위 경제대국 미·중 간 관세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다.

또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소지를 일단 11월 상순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상대국에 주고받기 식으로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0%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서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 회담에서 양

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중국이 빨리(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데 대한 기대를 피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7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걸려온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일부나마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트럼프·푸틴 회담 D-4...장소·의제 준비 분주

'상호 불편한 장소' 오히려 장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휴전 담판을 앞둔 알래스카에서는 미 당국자들이 속속 도착해 두 정상이 만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디데이를 나흘 앞둔 이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장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미 당국자들이 미리 알래스카 현지에서 장소를 확정하고 의제를 명확히 하고자 분주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단기 임대 부동산 중개인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비밀 경호국이 앵커리지 내 침실 6개짜리 건물을 빌렸다고 전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여름 성수기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알래스카에서 양국 지도자가 만나는 만큼 관광객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알래스카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회담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미·러 정상회담 당일 앵커리지 주변 하늘길은 모두 폐쇄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오는 15일 앵커리지 상공에 'VIP 이동'을 알리는 항공 통지문을 이날 게시했다. FAA는 해당 게시글이 회담 다음날인 16일에 삭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867년 사들인 알래스카는 미국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어 그간 꾸준히 미국과 비서방간 외교 활동의 장소로 활용된 지역이다.

알래스카가 이번 미·러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된 것도 알래스카의 이 같은 지리적 특성과 역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알래스카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모두 "상호 불편한 장소"라고 이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싱턴 D.C에서 알래스카까지 비행기로 8시간이나 이동해야 하고 푸틴 대통령도 전시 상황서 비행기로 9시간이나 이동해야 하지만 미·러 어디에도 가깝지 않다는 점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매력에 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유엔총장 "이, 가져춰제 기자 공격 규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페인 뒤자리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지속해서 직면하는 극단적인 위협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페인 콩고스타에서 발생한 산불이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41.6도...유럽 최악 폭염·산불 이재민 속출

이탈리아서 열사병으로 어린이 사망

유럽 곳곳에 최악의 폭염이 강타하고 산불까지 번지면서 사망자가 나오고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와 피렌체 등 7개 주요 도시에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4세 어린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루마니아에서 온 이 어린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있던 가족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수일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당국은 12일에는 11개 도시, 13일부터는 16개 도시로 적색경보를 확대 발령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41.6도를 기록한 보르도를 포함해 베르주라크, 코낙, 생지롱 등에서 모두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내 폭염은 오는 19-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도 잇달았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지역에서 40도에 가까운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려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중부와 북부에서 대규모 산불 세 건이 발생하면서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탈리아에서도 베수비오 화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 130명과 군대가 진화를 위해 파견됐다. 베수비오 국립공원은 산불 때문에 폐쇄됐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유지하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